

대구주보

연중 제3주일(해외 원조 주일)

2014.1.26.(가해) 제1874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서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마태 4,12-23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회개’의 회(悔)는 잘못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마음아파 한다는 뜻입니다. 개(改)는 틀어진 것을 고쳐서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잘못하는 줄 알았으면,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고 힘써 고쳐야 합니다.

남산동 옛 성유스티노 신학교 성당
십자가와 감실
홍창익 비오 신부 사진

제1독서 이사 8,23ㄷ-9,3

제2독서 1코린 1,10-13,17

복음 마태 4,12-23

입당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화답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까이 다가온 하늘나라

김상조 대건안드레아 신부 | 5대리구 사회복지담당

예수님은 오랫동안 예언자들에 의해 선포된 분이시고 예언의 중심 내용입니다. 곧,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과 함께 계신다.”는 복음의 핵심인물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곧 하느님이요 하늘나라이시다. 그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인간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그분이 말씀하신 가독 찬 “때”(마르 1,14-20)는 이와 같이 인간의 역할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 뜻, 그분 바람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분의 활동이 시작된다. 그러니 오늘 복음에서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알려주는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역할이 중단되는(혹은 중단하는) 그 “때”에 비로소 하느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징이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늘나라의 도래가 시작되는 땅도 인간적인 기대와는 어긋나는 곳, 이방인의 도시, 죽음의 그늘 진 땅, 어둠이 드리워진 갈릴래아 지방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현 교황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수백 개의 종양으로 열굴이 일그러진 사람과 입 맞추고, 미국의 패트릭 대성당과 캐나다의 미카엘 대성당에서는 설치하기를 거부한 조각상, ‘노숙자 예수’상을 바티칸 인근에 설치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황님은 수많은 비그리스도 신자들도 열광하게 만드

는 사람, 참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신 듯하다. 그리고 그것은 교황님의 의지이기 이전에 교황님을 통해 펼치시는 하느님의 의지일 것이다.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인간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 어쩌면 우리가 확실히 잡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를 손에서 내려놓아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줄지도 모르지만,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예수님은 힘차게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어떤 커다란 업적을 쌓고, 또 참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그것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온 하늘나라에 비한다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일이겠는가!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을 것이란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가! 우리의 됴됨이나 공덕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엄청난 은총인 하늘나라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니 우리는 두고두고 감사해야 한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소극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가까이 다가온 은총이 얼마나 고마운지 깨닫고 온 마음으로 뜨겁게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참다운 회개일 것이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김상조**

2014년 해외 원조 주일 담화문

“인류는 한 가족, 모든 이에게 양식을!”

오늘은 제22회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 날에 ‘인류는 한 가족, 모든 이에게 양식을!’이라는 주제로 국제 카리타스의 지구촌 기아 퇴치 캠페인의 개막을 선포하셨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164개 회원 기구의 연합회인 국제 카리타스가 앞장서,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이를 향한 교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명을 수행하기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교황께서는 “오늘날에도 10억 명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지적하시며 “이러한 부끄러운 현실을 모르는 척하거나 기아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듯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셨습니다. 교황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는 모든 이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식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기를 호소하시는 교황의 긴급한 요청에 응답하여 지구촌 기아 퇴치 캠페인에 힘껏 동참하여야겠습니다. 한국 카리타스는 2014년 해외 원조 주일을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국제 카리타스와 연대하여, 더 이상 기아로 죽어가는 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배고픈 군중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부터 엠마우스에서 빵을 쪼개는 것까지, 탈출기의 만나에서부터 빵과 물고기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인간의 굶주림에 주의를 기울이셨고 굶주리고 버림받은 이들을 당

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며 성찬례를 거행했습니다. 이 기도는 매일의 양식을 함께 나누도록 격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식량이 결핍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 수 없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청하는 주님의 기도는 성찬례를 통해 우리가 모두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아로 죽어가는 일이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구하며, 우리 모두 지구촌 기아 퇴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한 인류 가족으로서,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이들의 침묵의 목소리를 대신함으로써, 이 소리가 세상을 뒤흔드는 커다란 부르짖음이 되도록” 모든 이들을 초대하시는 교황의 초대에 응답하여, 빵과 물고기의 기적이 가르쳐주듯,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굶주리는 이들과 나눕시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 14,16)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4년 1월 26일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김운회 주교



“한 칼에 내 목을 베어주게”

교구 제2주보 성 이윤일 요한 (1월 21일)

문화홍보실



일명 ‘제현’으로도 불리는 이윤일 요한 성인께서는 원래 충청도 홍주의 구교우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고향을 떠나 경상도 상주 갈골에서 사시다가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자 성인의 처갓집 식구들이 많이 살고 있던 문경의 여우목(호항리)으로 이주하여 사셨습니다.

큰 키에 술이 많고 긴 수염으로 위풍당당한 용모와 온화한 성품, 지극한 효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셨던 성인께서는 공소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외교인들을 입교시키고 신자들을 이끄셨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시작되자 그 해 11월 18일 포졸들이 여우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피하지 않으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태연하게 그들을 맞아 순순히 체포되신 성인께서는 문경관아에서 상주로 이송되시는 동안 혹독한 고문과 형벌을 받으시면서도 함께 잡혀 온 다른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묵상과 기도로 온갖 고초를 다 이겨 내셨습니다. 마침내 ‘사교의 두목이라 하여 사형을 선고 받으신 성인께서는 기뻐하시며 자녀들에게 “나는 이제 순교하려 떠난다.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 성실

하게 천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꼭 나를 따라 오너라.”고 하셨습니다.

1867년 1월 21일 성인께서는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음식을 다 드시고 대구 남문 밖 관덕정으로 끌려나가셨는데 집행관이 선고문을 낭독하자 성인께서는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내어 희광이에게 주며, “나를 위해 수고하는 자네에게 줄 터이니 받아서 요긴하게 쓰게나. 그 대신 부디 한 칼에 내 목을 베어 주게.”라고 하셨습니다. 경건하게 십자 성호를 긋고 스스로 목을 괴어 칼을 받으셨는데 돈을 준 효력이 있었는지 성인의 목은 한칼에 떨어졌습니다.

형장 근처에 임시로 뒹꼈던 성인의 유해는 후손들에 의해 대구 비산동 날뽕 뒷산으로 모셨다가 다시 경기도 용인군 묵리, 미리내 성지 무명 순교자 묘역을 거쳐 1987년 1월 21일 대구 성모당에 안치되셨는데 당시 대구대교구 교구장님이셨던 이문희 대주교님께서는 이날 성인을 대구대교구의 제2주보로 모실 것을 선포 하셨습니다. 그 후 1991년 1월 20일에 관덕정에서 이문희 대주교님 주례로 순교기념관 성당 제대에 봉안되었습니다.

성인께서는 1968년 10월 6일 바오로 6세 교황님에 의해 시복되시고 1984년 5월 6일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서울 여의도에 서 동료 순교자 102분과 함께 시성되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날랐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하나씩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 출발했지만, 집에 오면 금이 간 왼쪽 항아리의 물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항아리는 가득 찬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왼쪽 항아리는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주인에게 요청했습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두 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이 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것으로 쓰세요.”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네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단다. 우리가 지나는 길 양쪽을 바라보아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이지만, 왼

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니? 너는 금이 갔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그 생명을 보며 즐긴단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금이 간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어떤 때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삭막하게 되는 것은 금이 간 인생 때문이 아니라 너무 완벽한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요? 금이 좀 가도, 조금 부족해도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앤드루**

금주의 성인

1월 26일	성녀 바울라(과부, 로마, 347~404년), 성 아이슈타인(대주교 니나로스, 1188년), 성 코난(주교, 이오나, 7세기), 성 티모테오(바오로의 제자, 순교자, 에페수스, 97년경), 성 티토(바오로의 제자, 주교, 크레타, 1세기경)
1월 27일	성 비탈리아노(교황, 672년), 성녀 안젤라 메리치(동정녀, 3회원, 설립자, 브레시아, 1470/1474~1540년), 성 율리아노(주교, 르망, 3세기경)
1월 28일	성 베드로 놀라스코(설립자, 1189~1258년), 성 아마테오(주교, 로잔 1110~1159), 성 오도(주교, 보베 801~880년), 성 토마스 아퀴나스(신부, 신학자, 교회학자, 1224/1225~1274년), 성녀 칸네라(동정녀, 스캐터리, 530년)
1월 29일	성녀 바르베아(순교자, 그리스 에테사, 101년), 성 사비니아노(순교자, 트루아, 275년), 성 술피치오 세베로(주교, 교회학자, 부르주, 420/425년경), 성 아퀼리노(신부, 순교자, 밀라노, 650/1015년)
1월 30일	성녀 마르티나(동정 순교자, 로마, 226년경), 성 바르시메오(주교, 순교자, 에테사, 250년경), 성 세바스티아노 발프레(신부, 토리노, 1629~1710년경), 성녀 히야친타 마리스코티(수녀, 1585~1640년)
1월 31일	성 니체타스(주교, 노브고로트 1107년), 성녀 마르첼라(과부, 로마, 325/335~410/411년), 성 메트라노(순교자, 알렉산드리아 250년), 성 요한 보스코(신부, 증거자, 설립자, 1815~1888년), 성 치료(순교자, 303년)
2월 1일	성녀 브리짓다(수녀, 설립자, 킬데어, 453~523년), 성 지그베르트(왕, 아우스트라시아, 656년), 성녀 신니아(동정녀, 얼스터, 5세기경), 성 피오니오(신부, 순교자, 스미르나, 251년경)

■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 신년하례회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월 16일(목) 오후 2시 남산동 대신학원에서 열린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시어 “종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고 통합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인사하셨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월 18일(토) 정오 인터볼고 호텔에서 열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참석하시어 “힘찬 땀 박질을하는 말처럼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는 힘찬 학교가 되자.”고 격려하셨다.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안내



군부대, 교도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이들에게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빛>의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가입안내 및 회원특전

-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월간<빛>5권 보내기 후원)
- ▶ 후원계좌 : 대구은행 50510-149582-4 (재) 대구구천주교회의복지재단(월간 빛)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 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납입증명서 발급
- ▶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 _ 월간<빛> 053) 252-5392, 053) 250-3158

이제부터는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월 27일(월) 11:00 도량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28일(화) 14:00 계산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27일(월) 11:00 계산성당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2월 1일(토) 11:00 성모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1월 27일(월) 11:00 수성성당	-	-

성소 | 피정

예수회 학생 성소자 모집

건강한 인성과 신앙을 바탕으로
성소의 씨앗을 성장시키도록
학생들의 성소여정을 동반합니다.
대상: 중2~대학 2학년 남학생
문의: (010)9981-1208 / (010)6483-4008

살레시오회 성소 피정

기간: 2,7(금)~9(일)
장소: 서울 대림동 수도원
대상: 고3~30세 남성 / 3만 원
문의: (010)3894-1332

섭리 기도 모임(미혼 여성)

일시: 2,8(토) 14:00
장소: 수원 왕림리 본원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3940-3635

교육 | 모집

2014 본당사회복지학교(기본과정) 모집

토요반: 2,15~3,15, 14:00~17:00(4회)
월요반: 2,17~3,10, 14:00~17:00(4회)
대상: 전신자
참가비: 1만 원(교재비포함)
문의: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255-7222

2014 학산간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기간: 1,1(수)~2,21(금)
수업: 매주 월~금 / 18:30~21:00
대상: 중고등 미술업자(검정고시 대비반)
수강료: 무료(단, 교재비 본인 부담)
문의: 학산종합사회복지관, 634-7230

2014년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보육교사양성과정 신입생 모집(1년 과정)
특별과정(소양) 자격취득 가능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850-3055 / 3366

경산어버이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구약 2년 신약 2년의 총 4년
낮반: 금요일, 밤반: 수요일
심화반: 4년 수료자를 위한 2년 과정
내용: 교훈서, 시편(월요일)
문의: 815-7888 / (010)6776-2376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대상: 만15~26세 남, 1년 과정
내용: CAD,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특징: 교육비무료, 수당지급, 고건반 운
영, 방통고 편입학, 취업알선, 면접전형
문의: 살레시오회, (02)828-3600

사이버 성경학교 2014년 1학기 개강

대상: 성경에 관심있는 전신자
접수: 2월 말까지

문의: (010)7249-7966
<http://cyberbible.casuwon.or.kr>

마음으로 책읽기(독서 치료)

일자: 2014년 3월 매주 화요일
시간: 18:00~20:00(2시간 10주간)
장소: 남산동 성바오로 서원 / 12만 원
대상: 남, 녀(30대~5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장례지도사 무시험 국가자격증취득

국비지원 주말반, 주간반, 야간반
나이/학력/남, 여 무관, 선착순 40명
본당 선종봉사자 취업희망자 환영
문의: 대가대평교원, 660-5556~7

인천교구 실버타운<마리스텔라>

14년 3월 입주, 총 264세대 1,000
병상, 국제성모병원, 요양원 운영,
매일미사, 다양한 신앙프로그램
문의: (032)569-8500

<http://www.marisstella.or.kr>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3,12(수)~27(목), 15박 16일
장소: 이탈리아·그리스·이스라엘
내측 498만 원, 오션뷰 528만 원
발코니 558만 원 - 대한항공 이용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알아 두면 참 편한
계산성당 연도실
- 가톨릭 신자만을 위한 서비스
- 운구에서 발인까지 모든것
(장례절차/행정서류/성당에서 도와드릴)
상담안내 | **256-2046**
24시간 상담가능/도우미·상담사 무료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내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이 원 의 료 기
협압계·혈당계·혈체어·산소치료기
뜸·부항기·주열기·찜질기
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품·안마기
실버카·보호대·글루코사민·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국가등록업체·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회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서류중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병자성사, 봉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중풍·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의사·간호사 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영, 양·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오썬) 신부
TEL 053)615-4871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성모발현지 외 다수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백두정형외과
SINCE 1975 <http://baekduos.com>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4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승현역 2번 출구

행사 | 모임

가나 피정

기간: 3.1(토) 14:00~2(일) 16:00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참가비: 1인 5만 원(선착순 30쌍)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교육 | 모집

한국천주교회사 및 성지안내봉사자 4기 모집

기간: 3.7~7.11 (매주 금)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수강료: 20만 원
강사: 이찬우 신부, 담당: 서준홍 신부
문의: 상담봉사자, (010)2802-2703

가톨릭 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1.29(수) 14:00~16:30 / 접수: 13: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1만 원
주제: 고3 수험생을 위한 부모의 역할
강사: 이유정 데레사(무학고등학교 교사)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신입생 모집

대상: 중학교 과정(학력인정 대안학교)
원서접수: 2.12(수)까지
문의: (054)338-0530
<http://www.sanjayeon.kr>

14년도 1학기 신학성경강좌 수강생 모집

성사론, 축일과 신자생활, 윤리신학, 요한묵

시록, 성화와 함께하는 성경이야기, 동양철학, 대구의 신앙역사문화, 미사전례와 신자생활, 신약-구약성경과정, 구약성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2014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취득과정

접수: 1.2(목)~3.21(금)
교육기간: 4.1(화)~6.27(금)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교육비: 50만 원, 문의: 255-7222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사진창작: 2.3(월) 10:00
발성법·가곡성가: 2.4(화) 13:30
심리상담2급: 2.4(화, 수) 14:00
사범·제대꽃꽂이: 2.7(금) 10:30
문의 및 신청: 254-6115

가톨릭근로자회관 2월 영아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2.4(화) / 월 3만 원
낮반: 창세기, 마태오(화, 금 10:30)
저녁: 창세기, 사도행전(화, 목 19:00)
문의: (010)2578-5535
관덕정(목 10:00) 시편 강의 중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성체 신심 세미나

기간: 2.21(금)~23(일), 베네딕도 수녀원
내용: 현사조배, 강의, 참회, 면담성사, 안수
강사신부: 하성호, 송재준, 현익현, 변재홍, 정기모, 강혜경 수녀
문의: (010)5493-1819

제14회 PBC창작생활성가제 공모

본선: 5.23(금) 19:00
접수: 3.14(금)까지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악보 9부, 참가곡CD, 사진 1장
문의: 평화방송, (02)2270-2323, 2329

여성가족부인정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기간: 3.18~6.17(매주 화) 9:30
대상: 전문대졸업자 이상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채용 | 안내

무태성당 사무장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마감: 2.9(일)까지
문의: 955-6600

가톨릭푸터 상담원 채용

자격: 사회복지사 1·2급(만 25~35세)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마감: 2.3(월), 문의: 764-8537
온라인접수: ggglade@hanmail.net

TV평화방송 특별기획 미션2(볼리비아 편)

교구사제 7명의 해외선교 활동
1부: 1월 31일(설날 / 금) 9:00
2부: 2월 7일(금) 9:00

사랑하는 자녀에게 밝은 세상을
아이 라식은
사랑입니다.

의학박사
현.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중원**(소시모)
대구연세안과
☎ 053.626-8881~5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2014. 5. 15
개교100주년
기념식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글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 · 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글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분도의 한방을 기름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직한 분도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 (무료전화)
053)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 (베네딕도)

행복한 재할·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동, 윌레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미형**(요셉파나)
이범수(대천안드레아)
☎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정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과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MRI, CT, 위/대장 내시경
- 건강보험검진, 공무원종합검진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 출구 (율곡로상대 맞은편)